

문화예술산업에 통합전산망이 필요했던 이유

이 상 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정책센터 차석전문원

■ 들어가며

창작과 실연을 통해 창의적 가치와 혁신을 추구하는 예술의 성과를 수치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술이 유통되고 거래되는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적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의사 결정에 직관적으로 참조할 수 있으며 다른 산업과 비교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산,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국내 문화예술산업 분야에서 종합적 정보 수집 및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사례를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영화산업에 통합전산망이 구축된 배경

국내 영화산업의 경우 일찍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운영과 각 상영관의 입장권 판매 데이터 전송을 법제화¹⁾하였는데 이를 통해 누구나 국내 상영작품의 관객수, 매출액 등과 같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5월 4일 첫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영화진흥위원회, 2007; 이덕주 외, 2015에서 재인용) 우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흔히 접하는 ‘추석 극장가 흥행 순위’나 ‘국내 몇 번째 1,000만 관객 돌파 흥행작’ 등과 같은 정보는 주로 해당 전산망을 통해 전송·수집된 데이터에 기반 한 것이다. 그 당시 국내 영화산업에 통합전산망이 도입은 영화산업 전체에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통합전산망 등장 이전 한국영화산업은 제작영역에서 제작비 횡령과 유용이 일상이었으며, 극장유통에 있어서는 입장권 재활용, 발권정보 왜곡과 같은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이덕주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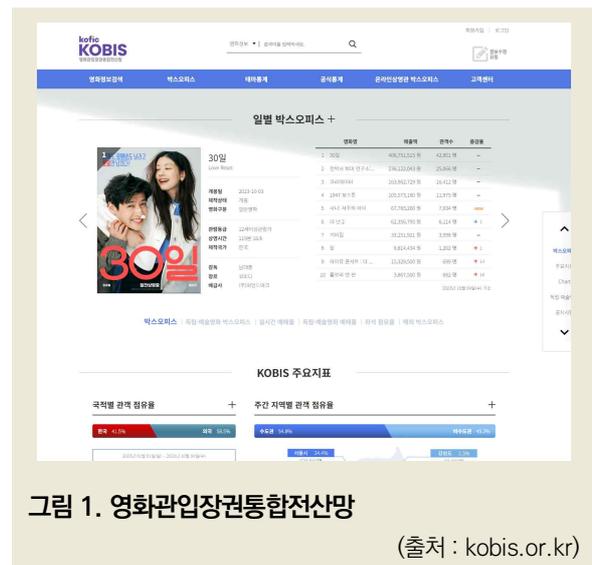


그림 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출처: kobis.or.kr)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구축과 운영

공연예술산업 또한 위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는데 2011년 ‘문화체육관광포럼’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후 다 년 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2014년부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이 시작되었다.(이의신, 김선영. 2017)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rea Performing Arts BoxOffice Information System: KOPIS)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해 산업통계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연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의신, 김선영. 2017)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은 2019년경 공연법 제4조에 따라 법제화되어 국내에서 공연장운영자, 공연 제작사, 기타 공연 입장권 판매자에게 해당 법령에 따라 판매 공연에 관한 정보와 판매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국내에서 판매되어 전산발권된 모든 공연티켓 판매정보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정보’란 구체적으로 <표1>과 같다.

표 1. 공연법시행규칙 제2조(공연정보)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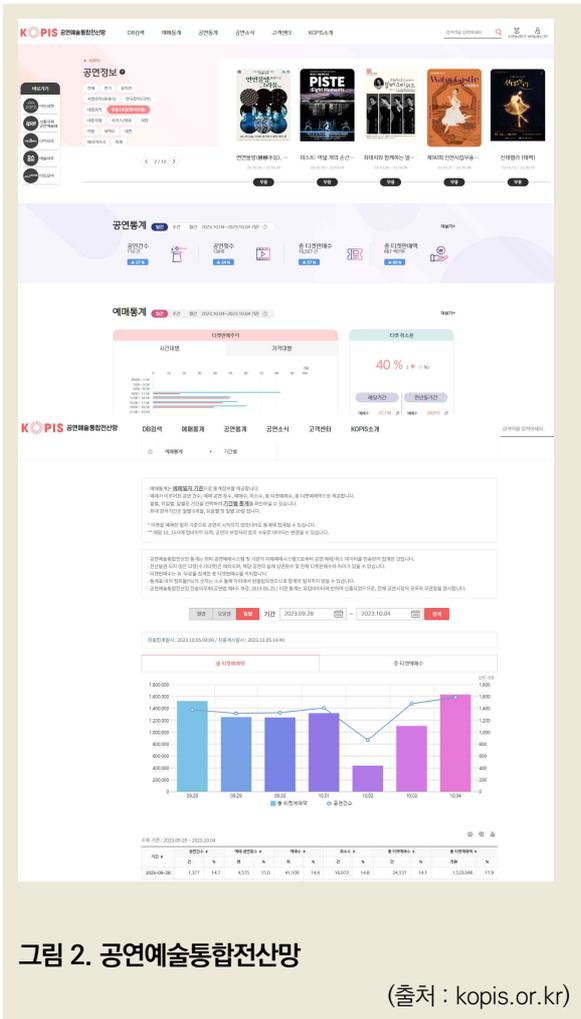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관련안내사항

[본조신설 2019. 6. 25.]

(출처 : 공연법 시행규칙 제2조)

■ 문화예술산업에 통합전산망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수집과 공개는 관련 예술산업에 어떠한 장점을 가져다주는가? 우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해당 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에 자금유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당연하게도 본인이 투자한 상품이나 기업의 판매에 관해 투명한 정산에 기초한 수익배분을 기대하는데, 특히 공연예술작품의 티켓판매는 다양한 예매/결제 수단과 판매주체, 공연장마다 다른 좌석 여건, 다양한 시간대의 공연회차, 수시로 일어나는 예매 변경/취소 등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이때 투자자에게 배분될 이익은 기본적으로 전체 공연매출액에서 대관료, 출연료, 제작비 등 필요 경비와 부대비용 등을 제하고 정산되는데 애초에 매출액에 관한 정보가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형태로 생산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산업 전체에 신뢰를 갖기란 어려운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투명한 정산구조와 다양한 투자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산업에 투자하면 되는 일이지 불투명한 정보제공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당 산업에 투자를 감행할 동기는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본인이 투자했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공연상품이나 제작사의 성과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문화예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피해에 관한 주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루어졌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23년 1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제도적인 엔더믹 이후 현재인 2023년 9월까지 전국 규모로 공연시장 지역별 매출액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사실상 유일하다.

마치며

영화, 공연 등 각 예술산업의 통합전산망 구축이 진행된 후 각각 20년,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으며 이제는 출판산업 또한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이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산업에서 데이터가 연계되고 제공될 수 있는 이러한 통합전산망에 관한 제도가 논의되고 실현되며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이 축적되었을 것이다. 문화예술분야 통합전산망들이 그동안 쌓아왔고 앞으로 쌓아나갈 데이터가 10년, 20년, 30년 후 우리 사회와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원천으로서 쓰일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개선점이 논의되어 지속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

둘째, 해당 산업에 관한 시의성 있는 통계생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표본조사가 아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판매데이터가 1일 단위로 전송되는 이러한 방식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시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공연예술 산업에 관한 공식 통계로는 국가승인통계인 ‘공연예술조사(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데 해당 통계의 경우 전년도 기준 데이터가 발간연도 연말에 공표되는 관계로 실제 기준이 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경우 보고 작성 시점인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날짜까지 집계된 공연 판매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다.²⁾ 예시

2) 단, 전산망을 통해 연계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근시일 내 데이터는 연계기관의 추가 전송이나 신규연계 등의 이유로 변동되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자료

공연법(2023. 8. 8. 법률 제19592호)

공연법시행규칙(2023. 5.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2호)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

이의신, 김선영.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연예술산업을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고찰.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8(), 227-242.

이덕주, 박지훈, 박성준, 김경택, 김태구. (2015).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활용현황, 효과 및 쟁점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22), 377-412.

영화진흥사업백서 편집위원회, 『영화진흥사업백서: 1999~2006』, 영화진흥위원회, 2007, p351.

「공연예술통합전산망」(2023.9.30.), <https://www.kopis.or.kr>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2023.9.30.), <https://www.kobis.or.kr>.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2023). “문화예술산업을 통합전산망이 필요했던 이유”.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33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상규 239kyu@kcti.re.kr
ACKIS브리핑 작성 2023.10.06.

#통합전산망 #예술산업 #영화 #공연법
#영화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예술통합전산망